

‘성년’ 된 전주세계소리축제, 본격 출항 예고

참신한 창작·예술 본위 축제 선언

성년을 맞은 ‘전주세계소리축제’가 프로그램 발표회와 쇼케이스 무대를 갖고 본격적인 출항을 예고했다.

축제는 내달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소리문화전당·14개 시군서 20주년 특집 개막공연 ‘RE:Origin’·현대무용단 힙합 등 선보여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조직위원장 김현)는 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올해 축제의 방향과 주요 공연 등을 공개했다.

메인 프로그램인 ‘관소리다섯바탕’에서는 스타 소리꾼 박수미, 박애리, 정상희의 연창으로 들리는 ‘춘향가’와 김준수, 유태평양, 정보관이 함께 꾸미는 ‘홍보가’가 도드라진다.

산조의 밤은 정통 산조의 깊은 맛을 내는데 집중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남원농악 상쇠 류명철 명인과 남원농악보존회 단원들이 꾸미는 ‘고사소리’를 시작으로, 젊은 소리꾼 정보관과 한유선 미리야스발레단의 플라보 무대가 이어졌다.

20주년 특집 개막공연 RE:Origin 역시 관소리 다섯바탕 눈대목의 대체로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를 상징하는 스무 명의 패널리들이 출연, 다양한 이야기와 공연 위로 20여 년 세월이 자 료화면으로 오버랩되면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비밀처럼 깃드는 지순자 명인, 펼쳐림 흐르는 강정숙 명인의 연주는 가히 국극(國劇)들의 열 전이라 불리며,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축제는 오는 9월 29일~10월 3일까지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14개 시·군에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통해 40여 회 공연을 치를 계획이다.

▲수도 높은 ‘진짜 산조·상쇠’라는 목격한 이름...매혹적인 전통

▲춤의 정점을 본다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지나온 길을 반추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고민도 담아낸 대로

메인 프로그램인 ‘관대의노’와 ‘산조의 밤’은 조금 더 예술성을 갖추는데 공을 들였다.

▲춤의 격조... 국립현대무용단 힙합 등 춤 예술의 정점을 본다

▲소리프론티어 시즌2, 색다른 판소리 연창 등 예술의 지평 확장

‘관대의노’는 ‘사금(四金)’이라는 이름으로 상쇠 명인들의 오리지널 최가락을 한 자리에서 듣는 무대다.

▲춤의 격조... 국립현대무용단 힙합 등 춤 예술의 정점을 본다

올해 소리프론티어는 시즌이라는 이름으로 판 소리를 확장한 장르의 변화를 실험한다.

류명철, 손영만, 유지화, 임광식 명인이 출연해 각기 다른 풍경 속 하나의 어우러짐, 대동 의 판곡을 연창할 것으로 보인다.

▲춤의 격조... 국립현대무용단 힙합 등 춤 예술의 정점을 본다



성년을 맞은 전주세계소리축제가 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프로그램발표회와 쇼케이스 무대를 갖고 본격적인 출항을 예고했다.

모던테이블의 ‘다크니스 폼바’는 해외에서부터 인정받은 컨템퍼러리 작품으로, 한국인의 한(恨)을 전통소리 폼바의 선율에 실어 한바탕 신명의 몸짓으로 재해석했다.

남성 무용수만으로 이뤄진 작품답게 역동적인 곡선미와 강렬한 움직임이 매력적이다. 가족공연 SNAP meets Sari(미스타리) 퍼포먼스 ‘스냅’은 동화적인 스토리텔링을 토대로 미디어아트, 그림자놀이, 마임 등과 결합한 무한한 미술의 세계를 무대 위에 펼쳐놓는다.

선우정아, 강하담림, 허림 등 독특한 보이스를 가진 매력적인 싱어송라이터들이 소리축제를 찾아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초청공연 하나하나에도 예술성과 작품성을 우선순위에 둔 만큼 소리축제는 올해를 예술제로서의 가능성을 접치고 예술성 있는 작품들의 중요 관문이 되겠다는 전략이다.

▲탱고&아쟁 만남, 로컬문화 결집... 소리축제표 새로운 코드 눈길

말리 아르헨티나에서 낚아온 ‘아스토르 피아졸라 쿨렛’은 올해 유일한 해외공연으로 화제의 중심에서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 기념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소리축제를 선택했다.

탱고 음악의 역사를 바꾼 역사가 아스토르 피아졸라. 20여 년 간 피아졸라의 음악세계를 잇는 유일한 앙상블로 인정받고 있는 연주팀이다.

소리축제에서는 특별히 아쟁 김영길 명인과 의 합동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 신선함을 더할 예정이다.

축제의 대미는 폐막공연 Fever Time-전북청년열전을 통해 마무리된다. /유호상 기자

순창 향가터널에 그림으로 추억 남긴다

섬진강 향가터널 입구 조성 무인공방 개장... 그린 그림 보관함에 남기면 그림타일 제작 터널 부차

순창군이 5일 섬진강 향가터널 입구에 조성한 무인공방을 개장했다. 무인 공방은 순창군이 지난 2018년부터 동계 구미마을과 적성 구남마을 유등 오교마을, 풍산 향마을 등 섬진강이 흐르는 각 마을에 테마를 담아 문화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섬진강 문화예술 다남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했다. 연면적 232.48㎡ 규모로 조성된 무인공방은 지난해 10월 본격 공사에 착공해 10개월간의 공사 끝에 이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제 순창을 찾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무인공방에서 순창의 주요 관광지인 인삼 길었던 곳을 그림에 담아 간직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와 미술 도구가 상시 준비되고, 특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언제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무료로 운영된다.

군은 방문객들이 무인공방에서 준비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보관함에 그림을 남기면, 연말에 그 그림을 모아 향가터널에 부착할 수 있는 그림타일로 제작해 터널에 부착할 계획이다.



순창군이 5일 섬진강 향가터널 입구에 조성한 무인공방을 개장했다.

들었던 교각에 조성한 목교는 밤이면 야간 LED조명시설로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

군은 무인 공방 조성으로 향가 유원지를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향가터널에 그림을 남겨 다시 찾을 수 있는 추억거리를 제공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순창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군 노홍균 문화관광과장은 “순창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그린 그림이 향가터널에 새겨지지만, 작가가 그린 그림을 찾아보기 위해 순창을 다시 한 번 찾게 될 것”이라며, “관광객이 순창을 재방문하게 시계가 늘어나도록 무인공방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청소년 위한 ‘톡톡! 클래식’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 21일 진행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청소년을 위한 ‘톡톡!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1년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드림필의 두 번째 공연으로 코로나19에 더위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해 쉽게 접할 수 없는 클래식음악회이다. 특히 청소년과 시민들의 위한 드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와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연습한 연주곡들을 선보이는 공연으로 준비하여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세벨라리의 아발사 를 시작으로 10명의 어린 아둥들의 바이올린 연주와 브레빌의 첼로 소나타, 성악가 고성진이 불러 유명해진 ‘시간이 기대어’를 감상할 수 있으며, 5인의 성악가와 함께하는 ‘맘마미아 메들리’, 2명의 청소년 바이올리니스트의 ‘개’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좌석 간 이크렐 칸막이 설치, 방역 소독, 발열 체크, 080 안심콜 자가 문진표 작성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료 예매는 10일 오전 8시부터 현장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akr/arc>)에서 동시 선착순 무료배부 한다

/김제=곽태 기자

무주 형설지공군립도서관 문화체험 각광

동화구연·독서논술·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 형설지공군립도서관이 군민들을 위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역할과 기능을 다하면서 군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화 동화를 듣고 만들기를 통해 부모와 함께 다양한 창의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이어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오후 7시~8시)는 교육실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총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으로 글쓰기를 비롯해

책읽기 방법 등 독서 관련 다양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다.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오후 7시~9시)는 중·고등학생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세계 문화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1월 4일부터 11월 11일(오후 7시~9시)에는 고등학생이상이 개인 및 보호자 동반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무주군 형설지공군립도서관 손주양 주무관은 “형설지공도서관이 책을 읽는 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교육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군민들이 유익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읍 예체문화관 내에 위치해 있는 형설지공군립도서관은 일반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자유열람실로 구성돼 있으며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종교, 철학 등의 분야를 총 망라한 4만5천여권의 장서가 구비돼 있다.

한편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복합문화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와 복합화하여 15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임기 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독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문화소통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판본문화관, 교원 ‘전통판각 직무연수’ 진행

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은 최근 세미나실에서 도내 중등교원 20명을 대상으로 2021 하계 전통판각 직무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30시간 동안 진행된 연수는 전통 판각의 개념과 기법을 실기 중심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또한 완판본문화관에서 운영 중인 기록문화체험, 전시해설, 책판 제작 과정 관련 특강을 병행해 전주 기록문화유산인 완판본을 접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한편 완판본문화관은 기록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가 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기회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직무연수를 시작했으며, 실제 진로체험 꿈길, 자유학기제, 찾아가는 완판본문화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안준영 관장은 “실습 중심의 연수로 결과물을 만들고 전주 기록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의미있었다”며 “기록문화의 창(窓)으로 통하는 직무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매년 교사와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집)은 6월~20일까지 15일 간 2021 문화예술교육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의 참여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큐베이팅이란 인적·물적 지원으로 벤처 회사의 성장을 돕는다는 뜻으로, 이 사업은 문

화예술교육 분야의 신생 단체에 현장 실형 단계별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문화예술교육사업 참여 경력 없는 신규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이다. 선정된 10개 내외의 단체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이론, 사례 연구 등 총 4회의 기본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기본교육을 75% 이상 이수한 단체에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 약 500만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